

중도상환수수료, 간주이자 해당 안돼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최근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피고 A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로부터 68억원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조기상환시 상환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만기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81만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해 받은 돈이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출금을 지급하면서 금융자문계약 및 대출약정에 따라 공제된 PF 취급수수료, PF 대출이자, SP C 회계감사 수수료, SPC 설립비용, 자산관리 및 업무수탁 수수료, 법률용역 수수료, 대리은행 수수료 등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조에서 정한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사전에 공제한 돈’으로서

선이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해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약정기간보다 대출금을 조기상환해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가 변제기보다 일찍 상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다른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징수해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이자로 간주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제한법상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이를 변경한 것이다.

민법 제153조 제2항은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68조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간주이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채무자 보호와 관련해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 나아가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약관 형태로 체결된 경우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나제8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부업법’ 적용 사안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업법의 입법목적, 적용대상, 규제 필요성 등 이자제한법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업법의 범리가 이자제한법상의 범리에 그대로 원용될 수는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제한법의 규제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추후 과다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액 감액이나 약관규제법을 통한 무효 주장이 여전히 가능하다.

/법무법인 바른

속도 느린 석화산업 구조조정... 정부의 구체적 지원 필요



기지수첩

원관희
(산업부)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는 이미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지만 정부는 정작 기업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과 지원책을 내놓기보다는 업계의 자구책만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전체 나프타분해시설(NCC) 용량 1470만톤 중 18~25%에 해당하는 270만~370만톤을 자율 감축하는 방안을 기업들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기업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

긴 채 정부는 방향과 주문만 반복하는 상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바램은 간단하다. 감축과 같은 살을 도려내는 결정을 하기 위해선 고부가·저탄소 설비 전환을 위한 자금 지원, 세제 혜택, 저리 대출, 전력비 부담 완화 등과 같은 실질적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을 얼마나 줄이면 어떤 지원을 받는지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확정하라는 요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정부가 감축안을 제출한 이후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 기업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할 수밖에 없다.

물론 중남 대산 산업단지처럼 자체 논의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는 곳도 없

지 않다. 하지만 지원과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구조조정 전체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설비 감축은 단일 기업의 결단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태계와 시장 재편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비용 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속도전만을 주문하고 있어 업계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일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골든타임은 선언으로 유지되는 시간이 아니다. 이미 위기가 누적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이 실제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조건, 즉 정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다. 업계의 시간이 아니라 정책의 시간이 필요하다.

/wk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11월 17일 (음 9월 28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최선을 다해 두드려라. 48년생 지나친 간섭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60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발. 72년생 유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84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다.

 소

37년생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49년생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뜬다. 61년생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일이 해결. 73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난감. 85년생 충언도 사람을 봐가며 따라야 하는 법.

 호랑이

38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50년생 삶의 질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62년생 종일 운전 주의. 74년생 나눠주지 않으려면 돈 자랑하지 마라. 86년생 밤을 이겨낸 자만이 찬란한 새벽을 볼 수 있다.

 토끼

39년생 게으른 사람이 말이 많은 법. 51년생 거미줄을 걷어내고 말끔히 청소. 63년생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다. 75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쁜 마음으로. 87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남들도 알아주는 기회가 온다.

 양

40년생 손재주가 있으니 가급적 남과 다투지 말고 외출도 자제. 52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한다. 64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조상님 사랑. 76년생 좋아도 떠들지 마라. 88년생 껌집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가라.

 뱀

41년생 좋은 결과는 침묵하는 선택에서. 53년생 가까운 사돈 사이라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65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77년생 입이 겹설하여 주변이 소란. 89년생 늦지 않았으니 가족간 대화를 하는 것이.

 말

42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이다. 54년생 과다한 지출로 곤란한 지경에 처한다. 66년생 새로운 물건이 집안에 들어온다. 78년생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유유히 보내라. 90년생 인간은 시련 없이 성공할 수 없으니.

 고양이

43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우선 노력을 해라. 55년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에 주의. 67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79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이다. 9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서류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

 원숭이

44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는 것도 좋겠다. 56년생 갈등이 생기나 해결된다. 68년생 동료들 시기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라. 80년생 사소한 실수로 계약 건이 틀어질 수 있다. 92년생 친구에게 밥을 사고 기분이 상쾌한 날이다.

 닭

45년생 새로운 기회로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 57년생 서리가 내리니 얼음이 얼 것을 준비하라. 69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 81년생 삼각관계는 애초 만들지 마라. 93년생 어디서든 실속이 있으려면 먼저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작.

 돼지

46년생 우는 아이는 달래야 한다. 58년생 순풍에 돛대배 가듯이 소조롭다. 70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이니 아픈 마음. 82년생 부모님께서 하였던 자녀교육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94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부족한 것이.

 돼지

47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59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71년생 감정만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83년생 변화의 운이니 이동도 길하다. 95년생 오늘 못하면 내일도 있었으나 실력은 소중.

김상회의四季

오대산 예산



민족의 젖줄인 한강의 시원을 애기하다 보니 오대산의 우통수를 소환했다. 오대산에는 서대 장령봉의 우통수뿐만 아니라 봉우리마다 생명의 감로수들이 솟아나고, 중대 지로봉 옥계수, 동대 만월봉 청계수, 남대 기린봉 총명수, 북대 상왕봉 감로수가 그것이며, 이렇게 다섯 봉우리로부터 물줄기가 합수되면서 한강의 근원이자 시원이다. 샘물은 맛도 좋지만 치유력까지 남다른 약수로서의 효능은 이미 정평이 높았기에 오대산 상원사 아래 개울에서 몸을 씻고 세조의 고질적인 피부병이 나았다는 얘기는 전설이 아닌 실화로 세조실록에 그 기록이 보인다. 특히 개울에서 몸을 씻을 때 홀연 어린 동자가 나타나 세조의 등을 문질러주었고, 이에 세조가 “어디 가서 왕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거라.” 했더니 “왕께서는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보았다고 하지 마시라.” 이에 세조가 놀라서 뒤돌아보니 동자는 사라지고 없었다는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상원사 입구에는 세조가 목욕할 때 벗어 두었던 옷과 허리띠와 갓을 걸어두던 관대(冠帶)걸이가 남아 있고, 문수전에는 문수동자상이 모셔져 있으며, 세조의 등을 밀고 있는 문수동자의 모습도 벽화로 남아 있다. 이후 세조는 그때 만난 문수동자의 형상대로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널리 알렸다, 강원도 진부에 위치하며 문수보살 성지면서 한국의 5대 적멸보궁의 하나로서 오대산 전체를 불교의 성지로 초석을 쌓은 분은 자장율사이다. 오대산은 동서남북과 중앙, 이렇게 다섯 곳에 암자를 지어 동대 서대 남대 북대 및 중대라 호칭하며 각 지장, 관음보살과 북대에는 미륵부처님을, 중대에는 조금 위의 봉우리에 적멸보궁이라 하여 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것이니 불자라면 그 이상의 보배스러운 곳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3	8					1
4	8			6		9		
			3					
		4			6			
1		9				7		2
			5			1		
					9			
		1		5			2	6
7				8	5			9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8	9	8	2	1	9	7	1
9	2	8	7	9	1	1	8	6
1	1	7	6	8	9	9	2	8
7	6	1	2	1	9	8	9	8
2	9	1	8	8	7	6	9	1
9	8	8	9	1	6	7	1	2
8	7	9	1	6	8	2	1	9
8	9	6	1	9	2	1	8	7
1	1	2	9	7	8	8	6	9

2	7	9	1	9	6	8	8	1
6	9	1	7	8	8	9	1	2
8	8	1	9	2	1	6	7	9
9	1	2	8	7	9	1	6	8
1	6	8	9	8	2	1	9	7
8	9	7	6	1	1	2	9	8
1	8	6	8	1	7	9	2	9
7	1	9	2	9	8	8	1	6
9	2	8	1	6	9	7	8	1